



12일 광주시 동구 공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본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은 기와가 남아 천막을 덮은 채 담장 곳곳에도 균열이 진행되는 등 초라한 모습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사적지 지정 홍남순 변호사 가옥 아직도 빗물 새고 소유권 해결도 안돼

내달 홍남순사업회 출범

광주지역 관심·추모 고조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급

5·18민주화운동 당시 지역 민주인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이 5·18 사적지로 지정되고, 오는 10월엔 홍남순변호사추모사업회가 창립되는 등 시대의 의인인 홍남순 변호사에 대한 관심과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은 방치된 채 허물어져 가고 있어 광주시의 보존·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재야 인사와 국내 범조인 등을 중심으로 홍 변호사를 기리는 홍남순기념사업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0월께 기념사업회가 창립될 예정이다.

현재 이 기념사업회에는 광주·전남 기념사업회 정용화 이사장,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김정남 전 청와대 수석

등 국내 재야 인사와 범조인,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해마다 홍 변호사의 기일에 맞춰 기념식을 열었는데 11주기를 맞는 올해 기념사업회를 출범해 체계적으로 '홍 변호사의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광주시도 광주시 동구 공동 15-1번지 홍 변호사의 가옥을 최근 5·18 사적지로 지정하고 지정성 등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복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홍 변호사의 가옥이 너무 낡고, 현재 또 종합사회복지관 소유여서 구체적인 복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3년 홍 변호사 가옥을 광주지역 민주인사들의 사랑방 격인 '민주의 집'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건물 면적이 51.23㎡로 비좁은데다 노후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홍 변호사 가옥이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존에 앞서 소유권 해결이 시급한 상태다. 또 기존 5·18 사적지가 모두 옛 전남도청 등 공공시설물이거나 도로변·공터 위주여서 별다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홍 변호사 가옥이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개인 집'이 5·18 사적지가 된 만큼 광주시의 전반적인 5·18 사적지 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한 해 예산 6000만 원을 들여 전남대정문과 상무관, 배교문 다리, 남동성당, 전일빌딩 등의 5·18 사적지를 보수·관리하고 있다. 전체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옛전남도청과 전일빌딩 등지는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보수·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고, 옛터나 도로변은 별다른 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매입 등 별다른 예산 증액 없이도 5·18 사적지 관리가 가능했지만 홍 변호사 가옥이 추가되면서 광주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 변호사의 다섯째 아들인 홍영욱씨는 "방으로 새들어오는 빗물을 막으려고 지붕에 올려둔 장판이나 비닐 조각을 보노라면 착잡한 기분마저 든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광주를 지켰던 아버지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집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공대 입지·규모 밀그림 나온다

한전 내년초 용역 발주 앞두고 지침 마련 실무작업 착수

지역협의체 가동...지자체·정부·지역 대학 등과 조율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외부 컨설팅 용역 발주를 앞두고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지역 초미의 관심사인 한전공대 입지와 규모 등도 담길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내년 초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최근 용역 지침서 작성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초 용역 발주가 목표다.

이르면 내년 초 한전이 발주할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학교개설 등 교육과정과 대학본부 운영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 내 한전공대 TF팀에서는 '용역 발주 전까지 한전공대를 설립할 부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대학 입지와 규모까지 용역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용역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용역 범위와 시기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초엔 용역이 발주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및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한전공대 입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설립부지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용역 발주에 앞서 용역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와 정부, 지역 대학 등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3일부터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석하는 '한전공대 설립 지역협의체'를 가동

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7월부터 지역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운영협의체는 이를 뒷받침하며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나가는 셈이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으로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약 150만㎡(45만3750평) 규모로 2020년까지 설립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전을 비롯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우려해 입지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정은 자산동결 빠지고 유류는 30%만 차단

유엔 대북제재안 결의...중·러에 막혀 당초案보다 후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관련기사 3면〉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여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

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선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후퇴하거나 빠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에 중학교 옆 폐기를 시설 ▶6면

나주혁신도시 '기러기' 43% ▶15면

청년·낭만그래퍼 김민수씨 ▶18면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9월 30일(토) ~ 2018년 3월 30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 A V E 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일본(큐슈, 야마구치)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운항 / 화, 금, 일요일 출발)

출/도착시간 무안(18:20) → 기타큐슈(19:30), 기타큐슈(20:20) → 무안(21:30)

[실속] 북큐슈 549,000원부터
[실속] 야마구치 559,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629,000원부터
북큐슈 온천호텔 559,000원부터



무안 ↔ 기타큐슈 전세기 운항

9. 30(토) ~ 10. 9(월) 추석연휴 매일!!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2(월), 10/3(화), 10/6(금)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7. 11. 17(금) ~ 2018. 5. 18(금)

하오일출발출/도착시간무안(08:05)→다낭(10:40), 다낭(14:40)→무안(20:30)
금요일출발출/도착시간무안(21:35)→다낭(00:10),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 · 호이안 · 1일 자유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99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노팁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94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 포함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용 : 1억원, 국내상용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일일(단, 기사/가이드 별차량, 숙박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